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7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0월 31일 (음력 9월 12일) 화요일

## ‘국회 예산·입법 전쟁’ 광주·전남 현안 관심

국정감사 종료 이어 국회 내년 예산안·입법안 처리 본격  
광주 37건 4500억원·전남 74건 9900억 추가 반영 노력  
5·18진상규명 특별법·섬개발 개정안 처리 여부 ‘주목’



**강진만의 가을** 남해안 최대 생태식식인 강진만 생태공원이 가을빛으로 물든 가운데 제2회 강진만 축추는 갈대축제 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하늘거리는 바다갈대 사이를 걸으며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지난 27일 개막된 강진만 축추는 갈대축제는 11월 12일까지 이어지는데 천혜의 강진만과 강진을 오감통에서 17일간의 음악여행을 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진다.

31일 국정감사 종료에 이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과 입법안 처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누락된 광주·전남지역 예산의 부활 여부와 주요 법안이 처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가 이달말 종료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여야 간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이 시작된다.

광주시에 전남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제1당인 국민의당과 예산 부활과 법안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짚금 반영되거나 아예 배제된 현안 사업 37건 4544억원의 반영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에 200억원 추가 반영을 비롯해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53억원), 무등야구장 리모델링(45억원),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 구축사업(20억원) 등이 대상이다.

또 가상현실(VR) 제작지원 거점센터 구축(50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101억원), 6T, 빅데이터 기반 급형제작 가치사슬 혁신 지원(29억원), 스마트 첨단의료 로봇산업 혁신 지원(45억원),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17억원) 등이다.

이와함께,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2545억원을 비롯해 광주순환도로2구간 건설(852억원) 광주~경전선(광주 송정~순천간) 전철화(48억원), 월전동~무진로 간도로 개설(82억원), 광주~대구 달빛 내륙철도 건설(5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45억원) 등 논란이 됐던 SOC사업들을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74건, 9947억 원을 추가 증액하기 위해 예산 담당관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뛰고 있다.

3000여원을 요구했지만 154억만 '짚금' 반영된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사업비와 3500여원을 요구했으나 1999억에 머무른 남해안 철도 사업비, 500여원을 건의했으나 167억원이 반영된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비 등이 주요 타깃이다.

또 수산식품수출단지외 영산강 I지구, 무인기·에너지 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예산 100억원, 새 정부 시책과 신규사업, 공모사업 등에서도 700억원 이상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광주·전남지역 공약과 주요 현안 추진을 뒷받침할 법안들의 처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위한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여부가 지역의 최대 관심사다.

나주혁신도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육성·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섬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 연륙후 10년 경과, 10인미만 섬 개발 관련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사업이나 흑산공항 건설사업비 등 국회에서 추가 증액되거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들에 대해 국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집권당인 민주당과 지역 제1당인 국민의당이 합심해 국회에서 예산이 부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국제농업박람회 4일 만에 방문객 13만 명 돌파

45만명 유치 목표 무난 전망

2017국제농업박람회가 개막 4일 만에 누적 관람객 13만 명을 돌파해 45만 명 유치 목표가 무난할 전망이다.

30일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에 따르면 개막 후 첫 휴일을 맞은 지난 29일 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총 5개 마당 14개 전시·체험관을 둘러보며 판마다 차별화된 오감만족 콘텐츠를 통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농업에 이해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제농업박람회 10만 번째 입장한 행운의 주인공은 29일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나들이 차 방문한 광주시 김현지 씨다.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김현지 씨 가족에게 TV를 선물로 증정했다.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앞으로 20만 번째, 45만 번째 관람객 축하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목표 관람객 45만 명을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월 5일까지 열리는 2017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농종마당, 전시체험마당, 상생교류마당, 혁신기술마당, 홍보관마당 등 5개 주제로 이뤄진 14개 전시관을 선보인다.

김정환 기자



금도?

지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사형원 의원이 또다시 거친 말을 주고 받았다. 친박 청산 여부를 놓고 촉발된 논쟁이 '성원중 리스트' 문제로 뒤면서 감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28일 밤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8선이나 되신 분이 새까만 후배한테 도와주지 못할 민정 그런 합박이나 하느냐"며 "해볼 태만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또 지난 9월 3일 서의원과 식사할 때 1시간 30분 동안 듣기만 했다. 도중에 알맞은 이야기(특히 취미를 하면서 대화를 했다)며 어떻게 그리 유치한 것을 하는지 이런 사람과는 정치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시스



화순군 Hwasun County

10.27-11.12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

2017  
화순

# 국화향연